

# 새로운 조경수 54

## - 분꽃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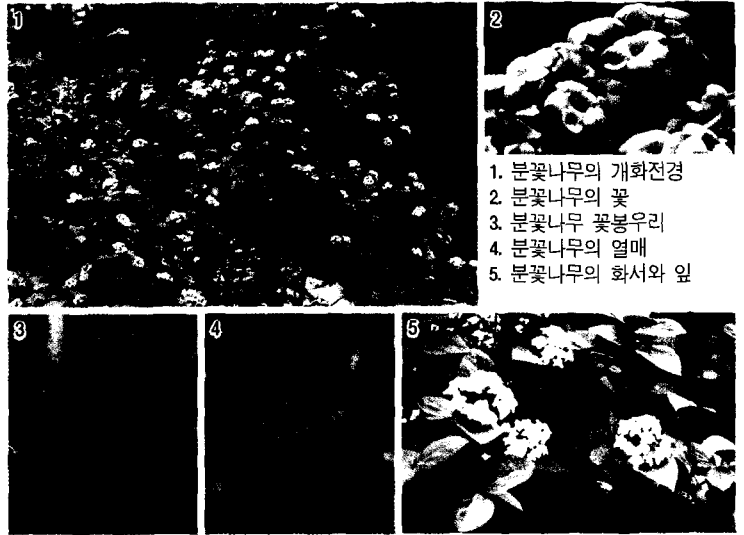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분꽃 나무류는 인동과 가막살 나무속에 속하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수고 2~3m까지 자라며 지표면에서 근맹아(根萌芽)가 많이 발생하여 떨기를 형성한다. 우리 나라 전지역(全地域)에 분포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중국, 시베리아, 일본등에 분포하고 있다. 생육적지는 산록(山麓)의 습기가 많고 햇빛이 잘드는 양지에서 잘 자라며 내한력(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도 강하지만 내염력(耐鹽力)이 강하여 해변에서도 잘 자란다. 분꽃나무란 이름은 꽃

의 모양과 향기가 마치 일년생 초류(一年生草類)인 분꽃과 흡사하다하여 붙여졌으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분꽃나무의 종류는 분꽃나무, 산분꽃나무, 섬분꽃나무등 3종이 있다.

모양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박하고 깨끗한 꽃으로 조경수로서의 활용성은 기대해도 좋은 나무다. 꽃이 피기 전의 꽃봉우리는 분홍색이고 꽃봉우리가 열리면 화관(花冠)의 외피(外皮)는 연분홍색, 내피는 백색으로 변하며 열매는 녹색-분홍색-짙은남색의 순서로 익는등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짙은 꽃향이 풍기기 때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여러 개의 꽃이 뭉쳐서 가지 끝마다 무더기 무더기 피어있는



1. 분꽃나무의 개화전경  
2. 분꽃나무의 꽃  
3. 분꽃나무 꽃봉우리  
4. 분꽃나무의 열매  
5. 분꽃나무의 화서와 잎

<표 1> 분꽃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본명	영 명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EMSL	オオチヨウジガmazミ	Fragrant Viburnum
산분꽃나무	Viburnum burejaeticum REGEL et HERD	カラスガmazミ	-
섬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EMSL var. bitchuense NAKAI	チヨウジガmazミ	-

〈표 2〉 수종별 특성

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분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 2~3m까지 자라는 떨기형 낙엽활엽관목임.</li> <li>· 지재부에서 부터 여러개의 줄기가 나와 총생(叢生)함.</li> <li>· 가지는 대생(對生)하고 어린가지에는 성모(星毛)가 밀생함.</li> <li>· 잎은 대생하고 광란형(廣卵形) 또는 원형, 예두(銳頭), 원저 또는 심장저(心臟底)</li> <li>· 잎의 길이 3~10cm고 잎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잎의 끝이 뒤로 구부러 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4~5월에 백색으로 필.</li> <li>· 꽃봉우리는 도홍색(桃紅色)이나 꽃봉우리가 벌어지면 외부는 연한 도홍색을 띠고 내부는 백색, 화서는 산방화서(繖房花序)</li> <li>· 꽃의 모양은 나팔모양을 하고 향기가 짙음.</li> <li>· 열매는 난형이고 길이 1cm 정도의 핵과(核果)임.</li> <li>· 9월에 분홍색 열매가 흑색으로 익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표고 50~1,100 m</li> <li>·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산록 적습지</li> </ul>
산분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이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엽저가 예저(銳底)임.</li> <li>· 잎가장자리가 오목하고 분꽃나무보다 작음.</li> <li>· 잎의 표면에 성모가 없고 잎의 뒷면 엽맥상에만 성모가 밀생함.</li> <li>· 기타 특성은 분꽃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관(花冠)이 길고 세장(細長)하며 가을에 익은 열매가 유난히 번적거림</li> <li>· 기타 특성은 분꽃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심산(深山)의 산록에 분포</li> <li>· 수직적으로는 표고 100~1,200m</li> <li>· 중국, 시베리아,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음</li> </ul>	·
섬분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이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분꽃나무보다 약간 좁음.</li> <li>· 잎의 표면에는 성모가 소생(疎生)하고 뒷면에는 밀생함.</li> <li>· 기타 특징은 분꽃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이 분꽃나무 보다 약간 작고 열매가 편구형(扁球形)임.</li> <li>· 기타 특성은 분꽃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표고 300m</li> <li>·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음</li> </ul>	·

문에 창문 가까이 있는 화단이나 정원에 식재하면 꽃도 볼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외국에서는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목원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며 앞으로 개발 및 보급이 기대되는 수종이다.

분꽃나무의 번식은 종자 및 삽목에 의하며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은 10월에 남색(흑색)으로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마

대(麻袋)에 넣어 잘비벼서 과피와 과육을 분리시킨 후 물로 씻어 과피와 과육을 제거하고 종자를 습한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을 하거나 노천매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기간은 종자가 후숙성(後熟性)이 강하기 때문에 2년간 저장하여야 한다. 과종은 4월상순에 2년간 저장하였던 종자를  $m^2$ 당 30cc(16g) 정도 산파(散播)하고 5mm정도 두께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벚짖을 얇게 깔아 상면(床面)의 건조를 방지하여 주면  $m^2$ 당 300본 정도가 발아한다. 상체

(床替)는 다음해 봄에  $m^2$ 당 20~30본 정도 이식한다. 삽목묘양성은 춘기(4월상순) 및 하기(7월중순) 삽목이 가능하며 춘기삽목은 전년지(全年枝)를 채취하여 10~15cm길이를 절단하여 밑부분을 예리한 칼로 비스듬히 단칼에 잘라서 삽수를 조제한 후 안내봉으로 삽수를 2/3정도 들어가게 꽂고 해가림을 설치하여 삽목상의 건조를 방지하여 준다. 그리고 하기삽목시에는 삽수상단부의 잎을 3~4개정도 남기도록 한다. **조경수**